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부(APPELLATE DIVISION)
인사 발표**

뉴욕주 전체의 4개 항소부(Appellate Departments) 모두의 공석 임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사법부(Judicial Department) 4곳의 뉴욕주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부(Appellate Division) 공석을 채우기 위해 5명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선정된 판사들은 예심 법정에서 사법적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뉴욕주 전 지역 사법 체계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명자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며, 공직에 대한 뛰어난 청렴성, 중용, 헌신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판사들을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부(Appellate Division)에 임명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뉴욕 사법 시스템의 충직한 도우미로서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항소부-제1부(Appellate Division-First Department) 임명자:

주지사는 Lizbeth Gonzalez 대법원 판사를 항소부-제1부(Appellate Division-First Department)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했습니다. 제1부는 맨해튼과 브롱크스를 담당합니다.

Lizbeth González 판사

González 판사는 2016년 7월부터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부(Appellate Term) 제1부(First Department)의 판사(Associate Justice)로 근무했습니다. González 판사는 또한 브롱크스 카운티 민사 지부(Civil Branch)에서 대법원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직책을 맡기 전,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브롱크스 카운티의 대법원(Supreme Court) 민사 지부(Civil Branch)에서 대법원(Supreme Court) 공보판사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2010년 뉴욕 가정 법원(NYC Family Court) 판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 민사 법원(NYC Civil Court) 판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뉴욕 민사 법원(NYC Civil Court)의 주택 부문(Housing Part)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González 판사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뉴욕주 법무부(NYS Department of Law) 차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뉴욕 법무부(NYC Law Department) 보조 법무 고문,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엠에프와이 리걸 서비스(MFY Legal Services) 수석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스톤 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에서 인류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항소부-제2부(Appellate Division-Second Department) 임명자:

주지사는 Paul Wooten 대법원 판사를 항소부 제2부 배석 판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했습니다. 제2부는 킹스 카운티, 퀸즈 카운티, 리치몬드 카운티, 롱아일랜드, 로우 허드슨 밸리 등을 포함하는 10개 카운티 다운스테이트 지역을 담당합니다.

Paul Wooten 판사

Wooten 판사는 킹스 카운티 대법원(Kings County Supreme Court)에서 민사 사건을 담당하다가 2009년에 대법원 판사직에 선출되었습니다. 판사직을 수락하기 전, Wooten 판사는 우튼 법무부는 폴 우튼 및 어소시에이트(Paul Wooten & Associates)의 변호사 겸 대표였습니다. Wooten 판사는 뉴욕주 아프리카계 및 푸에르토리코계 법률 단체(New York State Black and Puerto Rican Legislative Caucus)의 전임 변호사, 뉴욕시 교육 위원회(New York City Board of Education Members)의 특별 고문, 뉴욕시 법률 개정 위원회(New York City Charter Revision Commission)의 제1차관, 네셔널 컨벤션(National Convention)의 뉴욕주 민주당(New York State Democratic Party) 전임 대표 및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Wooten 판사는 또한 지역사회 권한강화 연합(Coalition for Community Empowerment)의 변호사, Albert Vann 하원의원의 전임 변호사, 뉴욕주 하원 어린이 및 가정 위원회(New York State Assembly Committee on Children and Families) 변호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블랙 변호사 협회(Metropolitan Black Bar Association)의 창립 회원입니다. Wooten 판사는 노스이스턴 법률대학원(Northeaster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하트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Hartford)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항소부-제3부(Appellate Division-Third Department) 임명자:

주지사는 John Colangelo 대법원 판사와 Molly Reynolds Fitzgerald 판사를 항소부 2개의 제3부 배석 판사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했습니다. 제3부는 미드 허드슨 밸리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아울러 서던 티어의 월러 카운티와 셔명 카운티 서쪽에 이르는 업스테이트 뉴욕 동부 및 북부 지역의 28개 카운티를 담당합니다.

John P. Colangelo 판사

Colangelo 판사는 2013년 선출된 이후 대법원(Supreme Court) 제9지역구(Ninth Judicial District)에서 근무했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되기 전, 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법원에서 판사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 로셀에서 시 법원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판사가 되기 전, Colangelo 판사는 콜란젤로 앤 골든버그 엘엘피(Colangelo & Goldenberg LLP)에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Colangelo 판사는 뉴욕 대학교 법학 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olly Reynolds Fitzgerald 판사

Fitzgerald 판사는 2016년부터 제6지역구(Sixth Judicial District) 행정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07년 대법원 판사로 선출되었고, 2008년 1월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출 전, 그는 빙햄튼 기업인 스미크 앤 피츠제럴드 엘엘피(Smyk & Fitzgerald, LLP)에서 파트너를 맡았습니다. Fitzgerald 판사는 조지아의 엘마이라와 아덴스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미국 가톨릭 대학교(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콜럼버스 법률대학원(Columbus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워싱턴 D.C.의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항소부-제4부(Appellate Division-Fourth Department) 임명자:

주지사는 Tracey Bannister 대법원 판사를 항소부 제4부 배석 판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했습니다. 제4부는 제퍼슨 카운티까지 북쪽으로 뻗어 뉴욕주 서부 및 중부 지역에 22개의 업스테이트 카운티를 담당합니다.

Tracey Bannister 판사

Bannister 판사는 2008년 처음 선출된 이래로 대법원(Supreme Court) 제8지역구(Eighth Judicial District)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6년부터 임명 전까지 대법원(Supreme Court) 제8지역구(Eighth Judicial District)의 민사 부문(Civil Matters) 부장판사를 맡았습니다. 그 직책을 맡기 전, Bannister 판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켄모어 빌리지 법원에서 공보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그는 뉴욕주 대법원(New York State Supreme Court) 및 항소부 제4부(Appellate Division for the Fourth Department)의 Jerome C. Gorski 판사의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Bannister 판사는 템시 앤 템시(Dempsey & Dempsey) 및 리차드 빈코 법률 사무소(Law Office of Richard Binko)의 공판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드폴 대학교(DePaul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러트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항소부 4곳의 각 사법 심사 위원회(Judicial Screening Committee)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수십 명의 지원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 지원자만이 주지사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후보자는 반드시 무결성, 독립성, 리더십, 지성, 법적 능력, 판단, 기질 및 경험을 보여야 했습니다.

주지사실에서는 대법원(Supreme Court) 항소부(Appellate Division)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심사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후보자 심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 및 사법 법령(Judiciary Law)에 따라 주지사는 대법원의 대법관(Justices of the Supreme Court)으로 선출된 사람들 중 각각의 항소부(Appellate Division)에 부장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